



送舊迎新 溫故知新.

黎明의 새해, 曙光의 새아침이 온 누리를 찬란하게 비추는 가운데 火災없는 밝은 福祉社會 建設을 위한 5千萬의 大合唱이 全國 坊坊曲曲에 메아리친다.

☆ ☆ ☆

榮光과 榮譽와 榮進의 防火安全奉仕賞, 해마다 늘어나는 火災, 해마다 늘어가는 人命과 財產被害, 이처럼 不美스런 數値가 늘어감에따라 不安, 焦燥, 緊張도 더 래 간다.

消防公務員의 名譽와 矜持를 되새겨 말은바 消防

行政에 粉骨碎身하고 있는 消防官들의 勞苦에 대해 百分之一이라도 因果應報의 功을 기리기 위해 베푸는 이 施賞制度가 長足の 發展을 거듭하고 있다.

☆ ☆ ☆

때 이른 「10월의 寒波」

世界的인 名著 스탕달의 「赤과 黑」이란 小說처럼 우리들의 겨우살이 채비로 「黑과 白, 赤」 다시 말해서 煙炭, 쌀, 그리고 김장을 빼놓을 수 없다.

그러나 多幸스럽게도 이 세가지 모두가 豐作이라 庶民들에게는 더없는 膳物中の 膳物.

☆ ☆ ☆

이제 刻苦精勵끝에 防災專門誌 火災安全點檢 제17호가 美麗하게 裝飾되어 햇빛을 보게 되었다.

이 한권의 冊字를 꾸미는 데 精誠스런 玉稿를 보내 주신 內務部 民防衛本部 金仁植企劃課長을 비롯하여 서울工大 金亨杰工學博士께 眞心으로 感謝드리며 특히 「海外 防災試驗所 實態」를 寄稿해 주신 李承煒, 金炳曉, 尹元重 세次長께 고마움을 表한다.

〈華〉

火災安全點檢《年2回刊》

(通卷 17)

登錄番號 바 520

登錄日 1973年 10月 11日

發行日 1982年 1月 1日

印刷日 1981年 12月 30日

非賣品

發行兼 李 大 鎔
編輯人

印刷人 李 南 亨

發行所 社團 韓 國 火 災 保 險 協 會
決人

서울特別市 永登浦區 汝矣島洞 1-614

汝矣島 郵遞局 私書函 27號

郵便番號 150-0000

電話 (782) 8111~8125

(783) 2121~2135

本誌는 雜誌倫理委員會의 雜誌倫理要綱을 遵守한다.